

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완료,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

- 시범운영 이후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사용자 문의, 상황 모니터링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여 안정적 개통에 이바지
-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통해 질병청 최초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마련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다.

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,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.

또한,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('23.12.18.~12.29.)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,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.

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, 분석기능, 가명처리*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·연구분석을 지원,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.

* 개인정보(이름, 주민번호 등)를 삭제·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.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사하다.”라고 전하며, “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하여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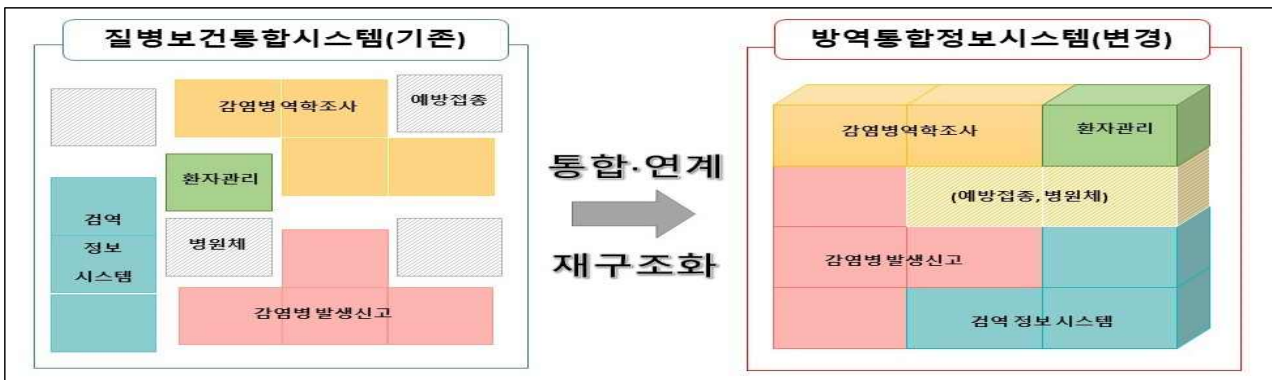
<붙임>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조정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	책임자	과 장	정우진 (043-719-70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종현 (043-719-7095)
			사무관	최상미 (043-719-8591)

□ **추진 배경**

-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, 정보의 횡적(대응단계) 및 종적(전달체계) 통합·연계 필요성 확인
-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·분양을 통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분석역량 강화 및 민간전문성 활용도 제고

<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>



□ **주요 추진내용**

- **(정보통합)** 검역·신고·역학조사 등 감염병 쏠 대응과정의 시스템을 통합 (감염병, 검역, 코로나19)하여 업무 효율성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적시성 확보
 - 그간의 경험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요 정보(역학조사 항목 등)를 사전에 시스템에 탑재하여,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·비용 절약
- **(편의개선)** 감염병 신고·보고, 역학조사 등 입력 시, 관계기관 공적 정보 연계를 통해 입력 편의성 제고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
 - 감염병 발생신고 기준 명확화 및 발생·사망신고 서식 통합, 역학조사 수집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사용자(지자체 등) 편의성 개선
- **(빅데이터)** 수집정보 기반으로 연구분석이 가능한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연구분석 활성화 및 외부개방을 통한 민간 역량 제고
 - 청 감염병 누리집을 통합하여 주요 감염병 정보, 시각화된 통계 (시계열 현황, 조건별 통계 등) 등의 제공을 일원화